

### 기획특집

제 3기 한우자조금 구성

### FOCUS

1. 송아지 생산안정제 토론회
2. 암소비육기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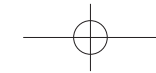
### Information

1. 반값한우 구매하자... 새벽부터 장사진
2. 설맞이 특집방송, 한우협찬 풍성

나그 너의 인생 그대 품에 안겨  
이름 수 있겠다. 고마워 친구야  
잠이 못 든다.  
영이 떠난 채 부른다.

# 한우로 이룬다!





## Contents February 2013

- 02~03 기획특집  
제 3기 한우자조금 구성
- 04~05 파워인터뷰  
1. 강성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2. 한영섭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 06~08 Focus 1  
송아지 생산안정제 토론회
- 09~11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2 Focus 2  
암소비육기술 소개
- 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4 한우전망
- 15 Information  
애독자코너

# 제 3기 한우자조금 구성 위원장, 의장, 관리위원 선출

강성기 위원장, 한영섭 의장 무투표 당선  
소 값 안정과 한우 소비촉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터

### 강성기 위원장 후보 단일화 대승적 합의 무투표 당선

제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에 現 강성기 위원장이 재선출됐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9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출마한 現 강성기 위원장을 제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후보로 나선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민경천 후보가 지난 14일 사퇴함으로써 단일 후보가 된 강성기 위원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 재선 강위원장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 단합아래 못넘을 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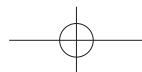
새로 선출된 강성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큰 결단을 내리신 민경천 후보의 뜻과 15만 한우 농가의 염원을 받들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 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한우소비촉진이라는 자조금 본연의 역할은 물론 투명한 자조금 운영을 위해 관리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꿈을 개인 혼자 꾸게 되면 그 뿐이지만 하나의 꿈을 위해 모두 화합한다면 현실이 된다”며 “그동안 화합하지 못했던 부분을 최대한 봉합해 우리 함께 화합을 이뤄나가자”고 당선 소감을 마무리 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지속적인 할인행사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진을 꾀하고 한우산업을 더욱 경쟁력있고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및 계도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속에 2013년을 희망으로 펼쳐가자!!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인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언제나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마련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잠시나마 현실의 시름을 잊을 수 있으니 그걸로도 족하다 생각해본다.







- ① 지난 19일, 한우자조금관리 위원회에서는 관리위원장, 의장, 관리위원, 감사 등을 선출했다.
- ② 강성기 위원장이 제 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당선증을 받았다.
- ③ 제 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 의장에 선출된 한영섭 신임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성기 위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지난 2001년 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한우협회 김해시지부 지부장, 한우자조금 대의원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 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 한영섭 대의원 의장 필두 관리위원 선출

또한 대의원 의장에는 충북 충주시의 한영섭 대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강원도 인제군의 김석봉 대의원이 추천되어 승인을 받았고, 감사에는 전남 고흥군 신건호 대의원과 경기도 파주시 황인식 대의원 2명이 선출됐다.

관리위원에는 경기 임관빈, 강원 변경현, 충북 박병남, 충남 최영목, 김충완, 전북 박승술, 임용현, 경북 안태희, 김홍길, 전상대, 성영욱, 경남 홍성표, 김두경, 이종섭 위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전남지역 관리위원은 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날까지 조율이 되지 못해 선임을 3월 예정인 차기 대의원회에서 선임기로 했다.

## 판로 확보 총력, 한우자조금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제 3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강성기 위원장

### 강성기 위원장은

- 경남 김해
- 1956년생
- 영남대학교 동물특수과정 수료
- 가야대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수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2012. 4. 17~현재)
- 한우자조금 대의원(2005. 2. 16~현재)
- 한우협회 김해지부 사무국장(2001~2004)
- 한우협회 김해지부장(2009~2011)



### 한우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할 것

“10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한우자조금이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제3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성기 위원장의 각오다. 강성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의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10개월간 한우자조금을 이끌어 오면서 변화보다는 업무파악과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소신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며 관리위원장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한우농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한우산업의 양대 축으로 한우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자조금이 소비자와 한우농가 사이에 가교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한우자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한우자조금은 우리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모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조금이 단 한 톨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우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한우농가들의 위상과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 도축두수가 사상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이 나름 역할을 다해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도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기업체들과 연계시킨 홍보활동 등 자조금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한우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한류 붐과 연계시킨 한우맛집 마케팅 활동 등 변화와 도전을 시도해 나가고 더 많은 기업체들과 연계시켜 다양한 한우고기 판로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제 3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한영섭 의장

#### 한영섭 의장은

- 충북 충주
- 1971년생
- 충주농고 축산학과 졸업
- 상주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건국대 농축대학원 축산자원생산학과 졸업
- 충주축협 대의원(2004~현재)
- 청풍명월 광역브랜드 충주 한우회 사무국장(2005~2007)



#### 지도자의 역량 강화위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한우산업이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 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3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한영섭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된 이후 자신감 넘치는 의욕을 내비쳤다. 한영섭 의장은 특히 지금 당장 가격 하락 등 현안이 있지만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우농가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한우는 농촌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품목으로 한우산업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산업인 만큼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장은 한우자조금의 사업이 소비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한 의장은 “한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안 없는 문제제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우자조금 대의원들은 물론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우자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 의장은 “한우자조금이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를 위해 강성기 위원장을 비롯해 관리위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우자조금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접고 본격적으로 한우사육을 시작한지 이제 10여년이 됐다. 한우를 키우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우를 키워왔듯이 앞으로 내 자식들에게도 자신있게 물려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보탬이 될 각오로 대의원회 의장을 임하겠다”고 밝혔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도의 취지 살려야, 사육두수별 차등지급 등 논의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최근 한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송아지값이 최고가 대비 1/3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규정이 변경되면서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주관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지난 5일 국회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읍 우리한우 이효신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과 한우협회 임용현 전북도지회장, 농협중앙회 김영수 축산경영부장,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최규성 위원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가장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였다”며 “지난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한우산업을 바로 잡는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관빈 한우협회 회장 직 무대행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번식농가의 경영안정화의 큰 기반을 다졌다. 수년간 번식농가의 적자가 지속되고 지금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농가 사육두수 기준설정, 차등지급 필요



이효신 대표(정읍우리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는 IMF 당시 가임암소의 출하가 심각해져 안정적인 번식기반이 우려되자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했다. 지금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에 절반에도 못 미치게 떨어져 암소출하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급기준을 변경해 번식농가들이 지급받지 못했고 불안감이 더욱 고조됐다. 정부는 90만두 미만일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90만두 이하일 경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지원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힘들 때 어려운 농가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지급기준이 전국의 가임암소를 토대로 구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농가의 사육두수로 단계를 나눠 지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몇백두 이상의 사육농가는 전업농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20두 미만의 영세농가에게 송아지 가격의 차액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토론 1 쌀과 소값만 좋으면 농촌은 산다.



임용현 도지회장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FTA 체결 이후 소값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가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통한 보전금이 과다 지급될 것을 우려해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가격하락 및 보전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금액만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었으나 일방적 변경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어려운 상황이 미리 감지됐을 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무대책으로 방관해 더욱 피해하게 만들었다. 농촌은 쌀과 소값만 좋으면 된다. 단순한 경제논리에 빗대지 말길 바라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생산비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토론 2 단계별 정부대응 필요, 공격적 마케팅 시행돼야

한우산업의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했기에 한우의 수급관리시스템을 정립해 구간별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정사육두수가 초과될 징후가 있다면 입식지원자금을 축소하거나 도태장려금을 지급해 가격폭락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적정사육두수가 미달될 징후가 있다면 다산우장려금,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의 정책변경을 예고하며, 홍수입식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대비해 분산입식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호주나 미국처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김영수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 토론 3 입식은 빠르지만 두수조절은 더디다.



정민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값이 오르면 빠른 속도로 입식이 늘지만, 가격이 떨어질 경우 두수조절이 매우 더디다.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사육두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단계에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암소자율도태 사업 시 암소도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10만두를 목표로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지만 한계가 있다.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기본적으로 번식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수급과 연계해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 송아지와 달리 혈통등록우 등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 토론 4 농가의 소득 창출 위한 정책 고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최근 소값 불안요인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로 요약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급 축소와 소비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정부는 소값 안정을 위해 2가지 과제를 모두 추진해 왔다.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안정제를 개편했고, 암소감축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0만두를 목표로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오는 5월까지 감축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한우자조금과 농협, 한우협회와 함께 반값 할인행사 등 지속적으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격하락 폭을 다소 방지할 수 있었다.

최근 일부에서는 암소감축장려금을 중단하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현 상태로 나가면 사육두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육두수 상황을 봐서 암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납도 한우 암소가 들어가지 않는데 군납을 추진해서 암소 가격을 지지해 나갈 것이다.



이상수 과장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 신임 사무국장 윤영탁씨 임용... 농협 암소 할인판매 정산 의결



▲ 윤영탁 신임 한우자조금 사무국장

한우자조금은 지난 달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진행해 총 5명이 지원,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윤영탁씨가 낙점됐다. 이에 지난 14일 관리위원회에서 채용을 승인해 새로이 임용됐다. 신임 윤영탁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윤 사무국장은 만 60세로 영남대 농축산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2년간 근무하며 홍보전산실장과 등급기술부장, 제주지원장 등을 역임하고 금천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농협 암소 할인판매 정산과 관련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농협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한우 암소 불고기 부위에 대해 20% 이상 할인판매를 하여 한우 암소 5,038두분(매출액 197억3천만원)을 판매했다. 이미 3,710두분에 대해서는 두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1,328두분

에 대해 두당 30만원씩 4억여원을 지급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장의 경우 부분육을 구입해 판매하는 등 적절치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2012년도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5~6일 청계천에서 한우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 ‘반값한우’ 구매하자... 새벽부터 장사진 설맛이 한우직거래 장터 개최, 불티나게 팔려



▲지난 2~3일 일산 덕이 아울렛에서 설맛이 한우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전 10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12시가 되기 전에 국거리나 불고기 부위의 경우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과 한우의 날인 11월 1일에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 한우 직거래 장터를 열어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며 “이번 행사를 찾은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이전 행사에서 오셨던 분들이 많다. 이제 한우 직거래 장터에는 고정 팬들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덕이아울렛에서도 한우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 속에서 한우할인판매에 열을 올렸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5일과 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반값 할인행사로 열린 한우 직거래 장터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한우자조금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설맛이 청계광장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쇠고기 안심, 등심, 채끝, 갈비, 양지, 사골, 우족 등 다양한 부위를 시중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했다. 특히 최대 반값으로 할인 판매한 국거리와 불고기 부위의 경우 장터가 열리고 채 2시간도 안돼 동이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당초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판매대를 채 준비도 하기 전인 오전 6시부터 반값 한우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결국



## 우리한우, 저렴하게 맛보세요!

### 농협, 이마트 대규모 한우할인행사 펼쳐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에서는 지난 2월 21일 부터 3월 3일까지 주요 '국민행복채움'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동안 전국 농·축협 축산물판매장에서는 구이용 23.1%, 불고기와 국거리용은 34.5%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또한 지난 22일부터 1주일간 축산농가돕기 기획전을 열어 한우등심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평소의 10배 수준인 30톤의 물량을 준비해 1등급 한우등심(100g)은 4,500원, 갈비(900g)는 35,000원에 판매했다.

## 우리 한우와 함께 따뜻한 설날 보내세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개최해 따뜻한 한우농가의 정을 나눴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울산



## 농가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시급

농업전망 2013 경북대회 한우산업발전토론회 개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경주 THE-K 경주호텔에서 ‘농업전망 2013 경북대회 한우산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은 농가의 주도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우병준 농경연 축산관측팀장은 “번식농가의 적자가 심각하며, 비육농가의 경우 1++등급 출하 시 순수익이 18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사육두수가 올해부터 10~15%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주제발표를 위해 강단에 오른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순환시스템에 충실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녹색 선진축산시스템으로의 재도약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수급조절 완화 및 저렴한 쇠고기를 생산하는 등 유통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집중토론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생산과잉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가임암소 사육두수를 모니터링해 총 사육두수를 조절하며 미경산우 지원사업 등을 통한 소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

했으며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가격 상승 시 사육두수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가격 하락 시 조절속도가 더디니 단기적인 수급균형과 가격안정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차이가 큰 이유는 유통업체의 책임으로써 축산농가나 법인이 생산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소비 및 판매까지 역할을 늘린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한우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료 공급부족과 가격부담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지적됐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사료가격 등이 한우산업의 위기를 부추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중국의 축산업발전으로 인해 조사료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기상 농협 경북본부 축산지원팀장은 “사육환경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종농가와 연대해 조사료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우 암소비육 이렇게 해야 돈 된다

### 농촌진흥청, 암소비육기술 소개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경산우 및 미경산우의 비육기술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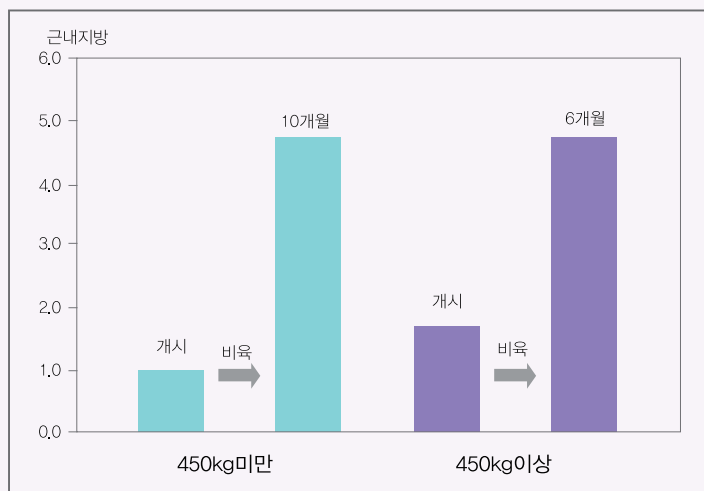
#### 경산우의 비육기술

우선 경산우의 경우 출하 시 나이가 많으면 성숙도가 증가돼 최종 육질등급 판정에서 1~2개 등급 하향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세 이전에 출하될 수 있도록 비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산우의 적정 비육기간은 비육 시작 체중이 450kg 미만일 경우 8~10개월, 450kg 이상일 경우는 6~8개월 정도이다. 이 때 배합 사료는 초기 4개월간은 체중의 1.7% 정도 제한급여하고, 이 후 출하할 때까지는 자유롭게 채식을 하게하고, 조사료는 비육 전기간동안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적 출하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비육시작 4개월 후 초음파 육질 진단을 실시해 근내지방도가 2 이하일 경우는 더 이상 비육해도 육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출하하는 것이 좋다. 3 이상일 경우는 최소 2개월 이상 6개월까지 비육해 출하하는 것이 육질개선에 의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미경산우의 비육기술

미경산우 비육 시 적정 출하시기는 최소 생후 30개월령 이상 비육해 출하해야 육질이 좋다. 육성기(생후 6~11개월령)에는 배합사료를 체중의 1.6% 정도 제한해서 급여하고, 조사료는 질 좋은 건초를 2~3.5kg 가량 먹인다. 이 때 배합사료를 너무 적게 먹이면 발정 발현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비육전기(생후 12~18개월령) 정도 먹이다가 후반기부터는 볏짚으로 차츰 교체해 주도록 한다. 비육후기(생후 19~출하시)는 배합사료를 1일 8.5kg으로 제한하고, 조사료는 볏짚을 2kg 정도 먹여 비육해 마무리한다. 특히 11~22개월령 사이에는 발정 스트레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양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 1】 비육시작 체중별 근내지방 변화





## 온가족이 함께하는 설, 한우가 함께해요!

### 설맞이 특집방송, 한우협찬 풍성

한우자조금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설을 맞아 특집방송에 한우선물세트 협찬 등을 진행해 한우소비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한우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였다.



2월 8일 KBS-2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2월 9일 SBS 봉어빵



2월 10일 SBS 도전 1000곡



2월 10일 KBS-2 출발 드림팀



2월 11일 KBS-2 대결 아이돌 가요무대



2월 11일 KBS-2 스타패밀리쇼 맘마미아



2월 11일 SBS 생방송 문자퀴즈 가족선물쇼



2월 11일 SBS 스타에정촌

##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임암소와 번식우 감소로 올해 3월 한육우 사육두수 작년 12월보다 감소 전망

번식우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보다 3.7% 증가한 305만 9천 두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2년 정액 판매량이 전년대비 12.3% 감소하여 2013년 송아지 생산두수는 201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두수 증가로 올해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작년 12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세우와 암소 도축 증가로 1월 등급판정두수 20.4% 증가, 3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 수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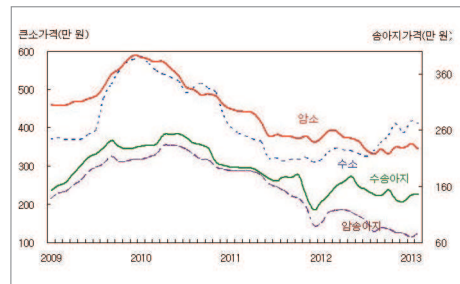
설 특수를 예상하여 거세우와 암소 도축 증가로 올해 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기간보다 20.4% 증가한 11만 8천 두였다. 이중 암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45.8% 증가한 6만 3천 두, 거세우는 전년보다 19.0% 증가한 5만 1천 두였다. 수입육 업체가 FTA 이행으로 미국산 판세인하 효과를 노리고 2012년에 수입된 물량을 이월하면서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크게(35.8%) 증가한 2만 8천 톤이었다(검역기준).

암소 감축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3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5만 9천 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육 재고가 여전히 많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2만 2천 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도매시장 가격 약세 전망, 막연한 기대심리로 봄철 우시장 송아지 입식 과열 경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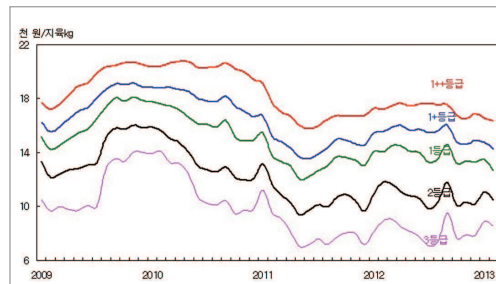
번식의향 위축으로 2012년 연말까지 송아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입식의향이 다소 회복되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작년 12월 86만 원보다는 다소 상승하였다. 2월 14일 현재 우시장 암송아지 전국 평균가격(6~7개월령 기준)은 97만 원, 수송아지 가격은 162만 원에서 형성되었다. 설 특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비수기에 접어들어 2월(1~14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2,660원(지육 kg)으로 전년동월 14,022원, 평년 14,411원보다는 9~12% 낮은 수준이다. 암소감축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3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월과 비슷한 12,000~13,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동월 14,478원, 평년 14,396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우 산지가격(우시장) 동향



자료 : 농협중앙회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우소식 이모저모

###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 연장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암소감축 관련사업이 모두 연장된다.

우선 당초 2월말까지 추진예정이었던 농식품부의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이 5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감축목표 10만두를 조기 달성할 경우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또 농협중앙회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 사업도 10만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 물량이 달성되면 조기종료 된다.

1월말 현재 농식품부가 3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감축사업과 농협중앙회의 자율도태사업 추진물량은 각각 6만7,000두 가량으로 당초 목표인 10만두에 약 3만3,000두 가량이 부족한 상황. 한우암소감축사업은 대상은 도축 시 출하개월령을 기준으로 미경산우는 24개월령, 경산우는 45개월령 이내여야 한다.

### 축산업허가제 23일부터 시행

축산업허가제와 축산계열화사업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 제도 모두 2010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제정된 법률로 향후 국내 축산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축산업허가제 시행으로 23일 이후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농가는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축업과 부화업·정액등처리업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허가제가 도입되며,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업규모의 두배 수준(기업규모)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네가지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다른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와 갈등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은 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사육경비 지급 기준을 명시했다.

## 애독자 코너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한우암소비육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미경산우는 생후 30개월령 이상 비육 후 출하해야 육질이 좋으며, 경산우는 2세 이전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경제적이란다고 밝혔습니다. 암소 비육 시 미경산우는 11~12개월령 사이에 발정 스트레스를 주의해야 하며, 경산우는 450kg을 기준으로 기준미만일 경우 8~10개월, 기준이상일 경우 6~8개월 비육해야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숙도가 증가돼 등급을 하향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살 이전에 출하해야 할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2월호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 당첨자

1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문호남(충남 예산군), 김소영(경남 하동군), 신미숙(충북 제천시), 김우동(경북 의성군), 김근수(경기 이천시), 박한철(경북 영주시)

## 한우 음식점 소개

하누랑

전화 : 055)687-7575  
주소 : 경남 거제시 옥포2동 1291-3 옥포축협 2층

단맛과 고소함이 결합된 한상의 맛 옥포축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하누랑'은 옥포 거제경찰서 앞 옥포축협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다. 거제·통영·고성축협의 공동브랜드인 '한결한우' 전문식당 1호점인 '하누랑'은 고품스런 인테리어로 색과 빛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즐기는 하얀꽃이 활짝 핀 두툼한 두께의 1+ 등급 한우 꽃등심은 맛의 절정을 이룬다. 부드럽고 연한 육질과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히 차오를 때면 천혜의 절경과 맛이 어우러져 더욱 감미롭게 느껴진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02-01108

비매품 제9권 통권 제88호 발행일 2013년 2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마화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한우**입니다

우리조상의 영혼과 슬기가 스며있는 문화재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천년을 이어온 우리 한우도  
15만 농가의 땀과 정성이 스며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한우입니다.

한우 품종별 분포도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흥성한우 경북 \_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한우 함  
\_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리한우  
\_ 백년 한우풍경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푸른연인한우 강원 \_ 늘푸름  
\_ 랑우랑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흥성한우 경  
\_ 주한우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한  
\_ 보리한우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  
\_ 한 \_ 한우백년 한우풍경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푸른연인한우 강원 \_ 늘푸름  
\_ 토조랑우랑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_ 각돌한우 영주한우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  
\_ 주한우 참예우 총채보리한우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리한우  
\_ 구 한우람 한우백년 한우풍경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_ 인한우 강원 \_ 늘푸름  
\_ 한우 황토조랑우랑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흥성한우 경북 \_ 의성 마늘소 참품한우  
\_ 문경약돌한우 영주한우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한우 함천황토한우 한결한우 의령  
\_ 향수한우 참예우 총채보리한우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리한우 대슬맑은한우 표고골한우 배



## 맛있습니다!

한우는 고기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다른 수입육보다 훨씬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한우는 수입육에는 없는 **유전인자가 5가지** 있습니다. 한우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올레인산, 각종 비타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전통 보양 음식입니다.



## 신선합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한우. **산지에서 갓 올라온 한우**는 그 어떤 수입육보다 신선합니다.

## 약속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건 약속, 한우는 **최고기아력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한우 홍보대사  
김선아